

성전에 영광이 충만

학개 2:1-9

간단하지만 아주 비전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확확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그러나, 새 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고 뛰면 어디까지 뛰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을 품으면 그 어떤 높은 산도 넘고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생활로부터 귀환하여 자기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훼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학2:1-3)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묵도하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학2:7b-9a)

현실의 어려움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찬 미래, 어떻게 이 암울한 현실에서 찬란한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난날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이 암울함을 뛰어넘고 옛날의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함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일할 때에 역사하는 주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2:4) 최선을 다하시면 미래가 밝습니다. 대충하면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우리교회가 44주년입니다. 교회가 44주년이 되었다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가지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지도자와 선진들이 있었고, 또 각자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스스로 열심히 했을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 가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미래는 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ra et labora”(오라 옛 라보라, 기도와 일) 기도와 일은 우리에게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대충한다면 그 사람에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미래있는 자는 기도와 일이 함께 뜨거워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상을 가진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기도와 일이 함께 뜨거운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더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말씀과 성령이 계속하여 머뭇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쓰입니다. 학개서에 쓰여 있는 이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무거움, 풍부함)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겁게 여겨지는 그 곳에, 하나님을 더 무겁게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는 것이고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주의 영광도 충만하게 임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미래를 영광스럽게 열어 주리라는 말씀입니다.(학2:5)

가정의 아버지의 말,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그곳에는 미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창19:14)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길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아들들은 다 망하고 그 말을

귀히 여겼던 아들들은 다 잘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말할 때는 잘 듣고 어른들이 말 할 때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시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었습니다. (눅2:51-52) 그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둘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고 잘 되게 될 줄을 믿습시다. 미래가 찬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 무거움뿐만 아니라 충만함, 풍부함, 성령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사6:3-4) 이렇게 영광의 충만함과 영의 충만함이 함께 체험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지난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성령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의 영광이 머물고 부흥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셔서 만국의 보배가 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학2:6-7a) 영광의 영광, 미래가 찬란하기 위해선 너희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보배이니, 내가 부르고 내가 택한 그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 교회와 그 성전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흑인 목사님은 인상도 좋으신데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여자들이 핸드백을 고쳐 맨다고 합니다. 차 옆으로 지나가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빨리 차문을 잠그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만나는 크리스천마다 우리는 형제자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문을 열고 친구가 되는 크리스천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영광과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다민족을 외치지만 여전히 냉대한 삶의 태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상처일 것입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교회설립 45주년 기념예배까지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민족, 다른 민족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가족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관심도 없다면, 이것은 허울만 좋은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되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실 주님께서는, “너는 특별히 뉴욕 땅에 다민족선교를 하게 하는 퀸즈장로교회에 있었으면서 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인정받는 것 밖에는 몰랐더라.” 하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 년의 기간이 있는 숙제이니 꼭 해 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전성기고 앞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내리막 길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오르막 길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 나눔의 시간 ○

1.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될까요? (맞다/ 틀리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3.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진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요?
4. 교회설립 45주년 기념예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요?